

# 신홍균(申洪均: 改名 申屹, 申屹) 한의사의 생애와 독립운동

정상규, 신민식  
인하대학교 융합고고학과

## Korean Medical Doctor Shin Hong-Gyun's Life and His Independence Movement

Jung Sang Gyu, Shin Min Shik

*Dept. of Interdisciplinary Archaeology, Inha University*

Shin Hong-Gyun and his family have been in medicine for many generations as Korean Medical Doctors (KMDs). In 1919 when Shin Hong-Gyun was participating in an independence movement in Jang-Baek-Hyun, his younger brother Shin Dong-Gyun was killed by Japanese military police forces. This tragic incident triggered Shin Hong-Gyun to establish an army for national independence called <Dae-Jin Dan>, holding 200 young men, to serve in armed struggle against the Japanese Government with Kim Jung-Geon in May, 1920. In March 1933, Shin Hong-Gyun, as a military surgeon, led his men to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to fight a battle. Once he became a member of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he, in fact, participated in few battles: Sadohaja, Dong-Kyung-Sung, Daejeonjayeong.

Daejeonjayeong was a waypoint that the Japanese military needed to pass through in order to reach the Wangcheong area. Shin Hong-Gyun's independence forces had to endure painful starvation and heavy rain while hiding in ambush for long periods of time until the Japanese military would appear. Due to its summer rainy season, rainwater overflowed into their trenches and was filled up to the waist. Even worse, food stockpiles were low and the Japanese army did not appear for longer time. Shin Hong-Gyun's entire team suffered severe hunger and extreme cold.

At this critical moment, Shin Hong-Gyun used his expertise as a KMD to find edible black mushrooms that grow wild in the mountains and use them to feed his men. This event led to the victory of the independence army at the battle of Daejeonjayeong.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inform and highlight the forgotten history of Shin Hong-Gyun who was, both, a Korean Medical Doctor and a military surgeon.

Key words : Shin Hong Gyun, Korean Medical Doctor (KMD), Army surgeon, Kim Jung Geon, Dae-Jin-Dan, Battle of Daejeonjayeong

## I. 서론

일제강점기의 시작은 무단통치였다. 우리 민족의 정신과 문화를 말살하는 통치정책의 시행이었고 전통의학인 한의학 역시 주요 목표물이 되었다. 한의학 속에 담겨있는 민족정기 때문이었다. 한의학을 공부하고 한의학을 이용하는 것에도 전통이 담겨있고, 당시 한의사는 잡과 과거에 합격해야 했던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일제는 한의학을 최소한 견제에서, 최대 말살까지 계획했고 실제 실행으로 옮겼다. 그 첫 신호탄은 '광제원축출사건'이었다. 1906년 대한제국 관립병원인 광제원에서 진료하던 한의사들을 무력으로 내쫓

고 서양의술을 배운 의사들이 전권을 장악한 사건이었다. 한의사들 사이에서는 민족적 차별에 의한 반일감정이 매우 고조되었던 사건이었다. 1913년 11월 일제는 조선총독령 제102호 '의생규칙'을 발표했다. 이는 면허를 받아야 의업을 할 수 있다는 법적 조치로서 법을 제정해 한의학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또한, 의생이라고 할 때의 "生" 자는 '날생' 자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오늘날 '의대생'이라는 뜻으로 용어 자체에 아직 전문의가 아닌 학생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다. 1913년 의생규칙이 반포가 되면서 대략 5,800여 명 정도 한의사가 면허를 받지만, 1942년 무렵에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한의사의 수는 3,600명 정도로 줄어들었다. 한의학은 자연스럽게 일제의 식민지 시기를 거치면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법적 조치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당고만 있을 수 없던, 당시 한의사 원로들이 서로 힘을 합쳐

접수 ▶ 2021년 04월 28일 수정 ▶ 2021년 04월 28일 채택 ▶ 2021년 05월 07일  
교신저자 ▶ 신민식,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81 6층  
Tel : 02-6907-2001 Fax : 02-6907-2020 E-mail : sms@jaseng.org

일제의 한의학 말살 정책에 대항하기 위해 한 단체를 만들었다. 1915년에 만든 ‘전선의생대회’가 그것인데 최초로 전국적인 한의사 조직망을 갖추었다. 한의사 원로들은 후진 양성을 위한 한학 강습소를 운영했으며, 학술연구와 교류를 위한 학술잡지와 의서를 꾸준히 간행했다. 이것이 동서의학 연구회다. 당시 이 행동으로 목숨을 잃을 수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당시 한의사들은 문자 그대로 목숨을 걸고 한의사 협회를 만들었다. 민족 의학으로서의 명맥을 잇기 위한 한의사들의 처절한 결의이자 노력이었다.

한의사들이 독립운동에 뛰어든 것은 조금은 숙명적인 부분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근거는 한의사이기에, 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임무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설령탕집, 국밥집, 여관, 그리고 한약방 등은 독립운동 관련 비밀연락 장소로 활용되었고, 1919년 4월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진 후 교통국, 연통제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다. 한약방의 경우 한약재를 구매하면서 거금을 지급하고, 이는 독립운동 자금으로 쓰이는 방식이었다. 한의사들은 대한제국군 친위대 군의를 맡을 정도의 전문성과 사회적 지위가 있었고, 그들의 한약방(국)은 독립운동 관련 정보를 쉽게 교환할 수 있는 비밀거점이었으며, 다수의 한의사는 약재를 캐기 위하여 주변 마을과 산 주위를 이동하므로 정보수집에 특히 뛰어났다. 대표적으로 현재까지 남아있는 독립운동 서울지역 비밀거점 한약방이 바로 동화약방, 오늘날 동화약품이다. 한국 근현대사에서 1890년대 들어 한국에도 서양 의가 배출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독립의병과 독립군 조직에는 한의사의 수가 훨씬 많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관련 자료 등의 부족으로 현재 국가로부터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은 한의사는 7명에 불과했다. 2020년 11월 17일 신흥균 한의사가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으며 한의사 출신 독립운동가는 8명으로 늘어났다.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한의사들은 ‘당시의 정의를 실천했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싶다. 당시 지식인 계층이면서 한의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만큼 독립운동이라는 고난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았겠지만, ‘0점’짜리 남편이 되는 길, ‘0점’짜리 아버지가 되는 길을 스스로 선택한 분들이기 때문이다. 이분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후세에 전할지는 현재를 살아가는 한의사들의 몫이다.

양 의계에서는 이미 의사 출신 독립유공자를 발굴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된 바 있지만, 한 의계에서는 그러한 활동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본 논문은 한 의학의 정체성·정통성을 확립한다는 차원에서뿐 아니라 한 의학이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며, 그동안 역사에 가려지고 잊힌 독립군 군의관 신흥균의 생애를 조명하고 알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동안의 연구자료를 토대로 국가보훈처에 서훈 신청을 했고, 전문 학예사와 선배 사학과 교수분들의 공증을 거쳐 마침내 2020년 11월 17일 한의사(군의관) 신흥균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따라서 이 논문은 주지하듯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한 독립유공자의 생애를 처음으로 공개하고 선양함으로써 한의사 출신 독립유공자의 지속적인 연구와 발전을 함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II. 본론

### 1. 경술국치, 북간도 정치 망명 시기

신흥균은 함경남도 북청에서 한의업을 가업으로 이어오고 있었다. 1911년이 되자 신흥균은 가의(家議)를 거쳐 식술을 이끌고 고향을 떠나 압록강을 건너 중국 봉천성 장백현 십칠도구에 도착했다. 1911년은 특별한 해였다. 경술국치 직후에, 많은 사람이 조선 땅을 떠나 옛 우리의 영토인 만주, 간도 지역으로 이동했다.<sup>1)</sup> 1910년 12월 이회영은 여섯 형제와 가족, 노비 40여 명을 이끌고 서간도 유하현으로 망명했고, 경북 안동의 이상룡과 김동삼은 50여 가구를 이끌고 서간도로 향했다. 밀양의 윤세복은 1911년 2월 겨울, 일가를 이끌고 서간도 환인현에 도착해 동창학교를 세웠으며, 박은식은 1911년 가을 서간도 환인현으로 망명했다. 1921년 일본 헌병대 문서에 의하면 장백현 강가지방에는 수백년전부터 이주한 사람이 있었다. 무송, 안도 지방은 100년전까지 무인의 땅이었으나 40년~50년 전(1871년~1881년)에 이르러 곳곳에 부락을 형성했다.<sup>2)</sup> 장백현에는 우편

1) 박경숙, 「식민지시기(1910년~1945년) 조선의 인구 동태와 구조」, 한국인구학, 2009;32(2):18-19, 29-58. : 연변 조선족자치주의 경우 1860년대~1910년대에 대거간 이후 함경도, 평안도 사람들 중심으로 대거 이주했고, 1910년~1931년 에는 일본 탄압 피해 이주를 시작했다. 특히 3.1운동 직후 이주가 많아졌다. 1931년~1945년에는 광복전까지 14년 동안 항일투쟁 무대 구실을 했다.

2) 1921년 11월 20일부터 42일간 지나 장백(長白), 무송(撫松), 안도현(安圖縣)을 정찰한 상황을 조선총독 남작 사이토 마코토에게 보고한 기밀 문서, 警秘 第一六四號, 大正十一年 三月 二四日, 「支那長白撫松安圖各縣下視察情況」, 朝鮮總督府警務局,

전신국이 있어서 임강 방면으로 통신이 가능하지만, 무송현과 안도현 지역은 우편국이 있을 뿐 배달일도 일정하지 않아서 우편물이 일주일 동안 방치되는 경우가 많고, 전보는 임강, 간도 또는 장백에 우송 발전해야 하므로 매우 불편했다. 또한, 겨울에는 한기가 강하여 영하 40도~50도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예년에는 9월 중순부터 다음해 4월경까지 눈이 내렸다. 갑산군(甲山郡)에서 압록강 상류를 건너 장백에 들어가는 길과, 백두산의 서록(西麓) 밀림 속을 통과하여 일단 무송현 만강(漫江) 부근에 나간 후 다시 장백현 내로 들어가는 길이의 2가지가 있는데, 후자는 도중 약 1주일이 소요되고 연일 노영(露營)의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 위 두 길은 모두 겨울에는 한기가 강한데다가 적설이 깊어서 매년 9월 중순부터 4월 말경까지 통과가 절대 불가능하며, 종래 이 기간에 모험적 통과를 시도하여 동사(凍死)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sup>3)</sup> 무송현, 화전현, 안도현은 송화강 상류의 이도하 강가에서 극히 적은 양의 쌀이 생산되었고, 밀림 지대 곳곳에 인삼 밭도 있으나 각 현 모두 약 1만 근 내외를 산출하는데 불과했다. 수십리에 걸친 대밀림은 옛날부터 개척된 적이 없었다. 상업은 각 현 소재지에서 약간의 거래는 있으나 성하지는 않으며, 길가 부락에 작은 잡화상이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정도였다. 일본군 헌병 경찰대 보고에 의하면 영하 38도, 적설 5척을 기록할 만큼 이곳 장백현은 사람이 살기 열악한 곳이었다. 부유한 중인집안의 한의사가 경술국치 직후 왜 집안 모두를 이끌고 이곳으로 왔을까? 신현표의 『월남유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술한다. 신흥군은 1911년 30세의 나이에 식솔들을 이끌고 정든 고향 북청을 떠나 압록강을 건너 길림성 장백현 십칠도구(十七道溝) 왕가동(王哥洞) 삼포(三浦)로 이주했다. 이때, 집안에서 소유하고 있던 20여 두락의 토지를 전부 장손에게 맡기고 떠났다.<sup>4)</sup>

장백현 이주 조선인에 대한 일본 헌병대 보고기록은 다음과 같이 전한다.

첫째, 함경북도 조선인 중 생활고에 시달리던 빈곤자 중에서 지나인의 권유로 장백현에 들어와서 화전을 일구면서

영주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했다. 이주의 동기 중 생활고가 8할이다.

둘째, 기타요인으로 피 유괴자가 1할이다. 지나인 지주가 조선인 소작인을 유치하는 방법은 매우 교묘한데, 지나 땅에서 소작농이 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득하면서 여비, 결혼 비용 등을 빌려준다. 그리고 한번 목적지에 오면 밀림을 벌채하여 화전을 일구게 하고 집을 지어서 이것을 대어줬다. 지나 관현에 뇌물을 보내서 조선인 소작인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하게 하여 항상 돈과 곡물의 빚을 지게 하여 그곳을 떠날 수 없게 하므로, 항상 생활에 불안을 느끼면서도 정착할 수밖에 없게 되어 영구히 소작농으로 지나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

셋째, 경제적인 이유로 이주하는 것이 아닌 정치적인 이유로 망명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3년 동안 (1919~1921년) 마적과 불령선인의 활동이 심해졌다.<sup>5)</sup>

1910년 경술국치가 일어나는 시점 전후의 이주와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뒤에 이주의 동기가 독립운동을 위한 이주라고 본다. 이 비밀보고서에 의하면 정치적 불평으로 인한 도피자가 약 1할이라고 했다. 따라서 북청에 있는 논약 4~6천여 평을 버두고, 한의사 집안이었던 신흥군 일가가 식구들을 이끌고 사람이 살기 어려운 척박한 산악지역, 불모지 장백현 십칠도구 지역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일제에 의한 탄압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망명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결국, ‘한일합방’이라는 경술국치는 한의사 신흥군의 독립운동에 대한 첫 번째 삶의 변곡점이었음을 알 수 있다.

## 2. 소래 김종건과의 운명적 만남

김종건은 함남 영흥 출신으로 1909년 봄, 동학교도였던 친아버지 金敎和의 권유와<sup>6)</sup> 일진회를 거부하고 개화사상을 토대로 동학의 ‘輔國安民’·‘廣濟蒼生’의 뜻을 이은 천도교에 입교하였다. 당시 영흥지역에서 천도교 포교활동이 활발히 진행되었던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sup>7)</sup> 그러나, 당시 천

3) 앞의 책

4) 申鉉表, 『越南遺書』 초안. 1959. “中派 장손 申鉉汐에게 위탁하고 장백현 십칠도구로 갔다.”

5) 警秘 第一六四號, 「支那長白撫松安圖各縣下視察情況」, 朝鮮總督府警務局, 大正十一年 三月 二四日,

6) 김종건, 『나의 四十年』, 소래의 철학과 사상집 I. 경기:소래선생기념사업회간. 1983:81.

7) 이영호, 「갑오농민전쟁 이후 동학농민의 동향과 민족운동」, 역사와 현실. 1990:3:195. “1904년 손병희가 북부지역의 교세확장을 꾀한 갑진개화

도교는 일제의 탄압을 받게 되면서 위축되어 갔다. 1909년 일제는 이완용 살해미수사건을 빌미로 천도교 간부 양한묵·오상준 등을 구속하였다. 1910년 8월 창간한 천도교 기관지 《천도교회월보》 간부 4명이 종로경찰서에 감금되어 발행이 중단되기도 했다.<sup>8)</sup> 1911년 4월에는 천도교 교주 손병희가 헌병대에 불려가는 등 운신의 폭이 좁아진 천도교는 독립운동에 소극적으로 나섰다. 김중건은 천도교가 더 이상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1910년 봄, 『天機大經』을 저술하며 자기 나름의 사회개혁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김중건은 1910년 9월부터 1912년 4월까지 「불이설」, 「천수설」, 「아심설」, 「덕으로 세상 살라나 말」 등 총 10편의 글을 《천도교회월보》에 게재하며 자신의 사상을 더욱 구체화시켜 나갔다.<sup>9)</sup> 그는 천도교의 사상을 재정립한 자신의 철학인 극원철학<sup>10)</sup>을 만들어 내고 이를 통해 사회를 개혁해 나가고자 했다. 그 후 김중건은 그의 철학을 정리, 완성해 민족종교로 발전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1913년 1월 1일을 기해 建元을 선포하고 元宗<sup>11)</sup>을 창립했다. 그러나 그의 전법활동은 그리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일제는 1911년 종교행위도 치안의 문제로 규정하였으며, 특히 한국 신종교에 대해 종교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하여 규제하였기 때문이다.<sup>12)</sup> 일제의 방해로 국내에서 더 이상 활동이 어렵게 되자, 그는 북간도로 건너가 자신이 창시한 원종을 전법하며 독립운동을 전개하고자 했다.

1914년 봄 북간도로 망명한 뒤에 김중건은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이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포교에 전념했다. 장백현 17도구 王哥洞으로 1916년 여름 金中建이 교도 6, 7명을 이끌고 찾아왔다. 당시 김중건은 ‘獨建主義’를 내세우며 우선 인재구합, 항일운동단체 조직, 투사양성 등에 힘을 쏟

았다.<sup>13)</sup> 신흥균은 소래 김중건의 철학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북간도로 망명한 자신의 삶에서 ‘학행일치’를 실제 행할 수 있게 도울 강력한 ‘동지’를 만난 것이었다. 그 뒤 신흥균은 이름을 신흥(申屹)로 개명하고 원종교 활동에 힘썼다. 특히 1915년 5월 일제와 중국 정부 간에 체결한 滿蒙條約<sup>14)</sup>에 의해 김중건과 원종교도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그는 김중건을 도와 포교 활동과 더불어 각지에 원종학교를 세우는데 힘을 보탰다.<sup>15)</sup> 그 결과 급격한 세력 확장이 일어났다. 그런 원종의 급격한 성장을 염려한 일본은 함남 삼수군 강진면 두지리 왜정 주재소의 헌병암살대를 파견해 장백현 왕가동 지역을 습격했다. 1919년 가을 일본 헌병대가 왕가동 습격 과정에서 신흥균을 잡지 못하자 그 동생인 신통균을 무참히 살해하고 압록강에 수장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신흥균의 동생 신통균이 살해당하고 압록강에 수장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온 가족들이 평생의 한과 분노지심이 뿌리 깊게 새겨졌다.<sup>16)</sup> 이런 일련의 사건은 한의사 신흥균의 독립운동에 대한 두 번째 삶의 변곡점이 되었다. 이전까지 한의사라는 직업적 특성을 활용해, 독립군과 마을 사람들을 치료하고, 교통국과 같은 비밀 거점으로 본인의 한약방(국)을 제공하는 간접적인 독립운동 지원이 주요 행위였다. 그런 신흥균이 의술을 펼치던 한의사에서, 총을 잡고 무장투쟁을 하는 독립군으로 그를 거듭나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다. 신흥균은 이듬해 1920년 5월 김중건이 안도현 항도자(興道子)에서 200여 명의 청년을 모아 무장투쟁계열 독립군 大辰團을 창설하는데 참여한다. 대진단 창설후에 일제의 대진단에 대한 탄압을 물리치고 다시 의기투합해서 모였는데 그 장소가 일본 헌병대의 장백현 습격사건이 일어난 지역이었다.

운동의 영향으로 함남 신자수가 1만여 명에 달할 정도였다”

8) 의암 손병희선생기념사업회, 『의암 손병희 전기』, 서울:의암 손병희선생기념사업회, 1967:257-258.

9) 이계형, 「金中建의 元宗 창시와 독립운동」, 한국학논총, 2013:39:292.

10) 극원철학이란 유교·도교·불교에 기독교를 섭취하여 종합했으며 또한 노자의 도의사상을 이어 받아 우주론을 전개한 것이다. 배종호, 「극원철학」, 나라사랑, 1976:24.

11) 『朝鮮의類似宗教』, 村山智順, 조선총독부, 1934. “동학계의 신종교이다. 김중건이 천도교 중앙총부에서 교습을 받고 1912년 영흥천도교교구장으로 취임하였다가 1915년 만주 장백현일대의 교포들을 규합해 민족종교 원종교를 창립했다.”

12) 윤선자, 『한국근대사와 종교』, 서울:국학자료원, 2002:49.

13) 이계형, 「金中建의 元宗 창시와 독립운동」, 한국학논총, 2013:39:289-324.

14) 1915년 5월 21개조 중 하나인 ‘만몽조약’(남만주 및 동부내몽고에 관한 조약) 체결로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던 간도 조선인을 둘러싼 중·일의 각축이 다시 표면화되었다. ‘만몽조약’은 남만주 및 동부내몽고 지역에서 일본인의 토지상조권(土地商租權: 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과 영사재판권을 규정한 것인데, 간도 조선인에게 토지상조권과 영사재판권의 적용 여부, 나아가 ‘간도협약’의 존폐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15) 김지용 편주, 『소래집』 1, 서울:소래선생기념사업회, 1969:38.

16) 申鉉表, 『越南遺書』 초안, 1959. “삼속 신통균씨는 (중략) 함남 삼수군 강진면 두지리 (나람포) 왜정 주재소 헌병의 암살대가 越江討伐 暗殺하여 압록강에 수장시켰으니 우리가족의 怨恨과 忿怒之心은 입으로 형언키 難할뿐 아니라 白髮老境인 나의 심중에도 항시 애수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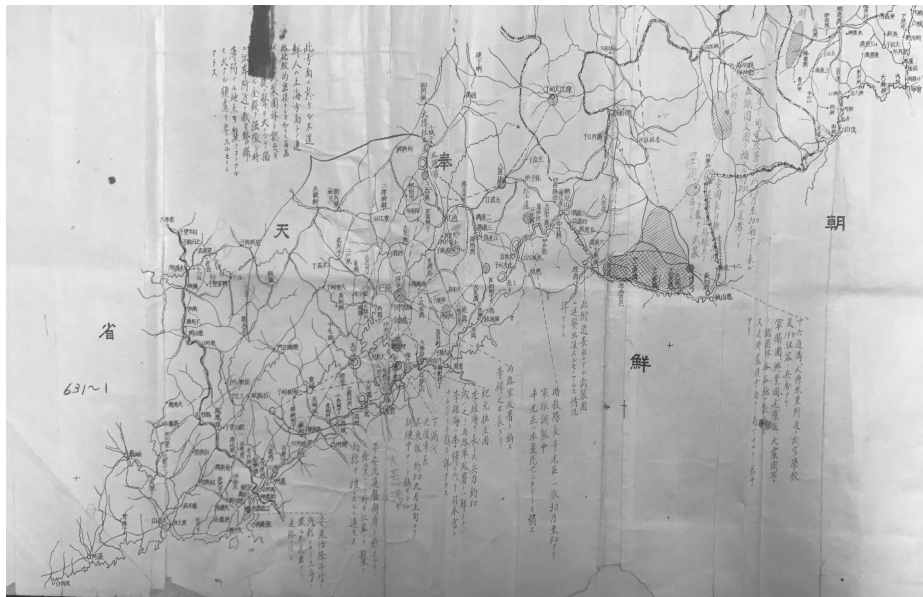


그림 1. 1920년대 장백현 지역 대진단 세력(7)(빛금친부분); 일본 외무성 자료

1921년 1월 15일 장백현 지단 대진단 사무소에서 장백현 왕가동 습격사건이 계기가 되어 장백현 독립단체들의 수장과 간부들이 대거 모여 독립군 조직체제와 무장투쟁 결사 집회를 가졌다.

<1921(대정10)년 (양력) 2월 5일, 고경 제 3450호>

함경남도의 강 건너편 지나 장백현 내의 불령 조선인 집회는 지난해 12월 20일에 실시하였다고 하되, 금년 1월 8일 혹은 15일이라고 도하고 또한 그 협의 사항 같은것도 각각 상이하여 일치하는 정보는 없으나, 요컨대 동현내의 각 불령 단체가 서로 연락하면서 불령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났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그들이 더 나아가서 각 단체를 통일하여 동일 계통 밑에서 해동하지는 이상을 가지고 있는 듯하나, 이것이 실행될지는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듯하다. 지금 그들의 집회에 관하여 믿을 만한 첩보에 의하면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 1. 집회 월일 및 장소

금년 1월 15일 장백현 16도구 덕수 서곡리 대진단 사무소 내

#### 2. 참가 단체 및 집합 인원

가. 군비총단. 소재지 17도구 대리치 (강변에서 6리)

나. 대진단 지부. 16도구 덕수 서곡리 (동 4리)

다. 태극단. 8도구 가재수동(동 6리)

라. 흥업단 지단. 18도구 덕영동 (동 6리) 본거지는 무송현 내에 있다고 함

마. 광복단 제 1결사대. 18도구서지동 (동6리)

제 2결사대. 18도구이두강 (동5리). 출석자 총 수 58명<sup>18)</sup>

1921년 1월 15일에 장백현 대진단 사무소에서 대진단 지단과 흥업단·광복단·태극단 독립군단체와 연합해서 다시 조직을 정비한다. 陸軍省 일본 헌병대 자료에 의하면 무력투쟁 결의 대회를 한 뒤 그다음 날 1월 16일 ‘불령선인’들은 일본 헌병주재소를 습격했다는 내용이 나온다.<sup>19)</sup> 습격장소는 함경남도 삼수군 강진면 두지리 왜정 주재소였다. 그곳은 신흥군의 친동생 신동균을 무참히 살해하고 압록강에 수장한 일본 헌병 암살대를 파견한 곳이다. 지도를 살펴보면 압록강을 건너 가까운 헌병주재소가 여럿 있음에도

17) 대진단 독립군은 장백현에서도 큰 세력으로 활동한 단체이다.

18) 大正八年乃至同十年 共七冊 其三『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 密受第三三號 其二下, 陸軍省, 高警第三四五號 國外情報, 「夫支那長白縣內不逞鮮人集會建」

19) 1919(大正8)년부터 1921(大正10)년까지 총 7권 중 제3권 朝鮮 騷擾 事件 關係 書類(密受 제33호 중 제2권 下卷)陸軍省 “一月十六日午後十時咸鏡南道新邑坡鎮警察署堡里駐在所搜查班ハ三水郡江鎮面斗地ニ於テ對岸ヨ侵入セムトスル不逞鮮人五名ト衝突シ不逞者一名ニ負傷セシメタルカ彼ハ逃走の際河中ニ墜落死亡シ他ハ支那地ニ逃亡セ 更ニ一月十七日夜同署搜查班ハ三水郡江鎮面宛坪里ニ侵入セル五名ノ不逞鮮人ヲ発見誰何シタルニ不意ニ發砲シツタ、逃走セシヲ以テ直ニ追跡其ノ二名ヲ殲シタルカ他ハ對岸ヘ逃走セ”

불구하고 1월 15일 결의대회를 갖고 다음날인 16일과 17일 멀리 떨어진 두지리 왜정주재소를 두 차례에 걸쳐 습격한 것은 목적을 갖고 습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1919년 왕가동을 비롯한 독립군 마을이 습격받은 것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sup>20)</sup>

표 1. 1921년 12월 장백현 일대 활동 독립군 단체 현황<sup>21)</sup>

지역	단체명	인원	조직구성	무장
17도구	군비단	1,590	단장 윤덕보, 총무 한창현	장총 140정, 권총 80정, 폭탄·탄약 약간
18도구	홍업단	640	단장 이한평, 총무 신태응	장총 70정, 권총 40정
19도구	광복단	470	단장 김희규, 총무 이수□	장총 170정, 권총 80정
16도구	대진단	390	단장 김중건, 총무 김중기	<sup>22)</sup> 장총 30정, 권총 20정
8도구	태극단	280	단장 조흥련, 총무 정철성	장총 20정, 권총 20정
12도구	칠석단	95	단장 이영□, 총무 김양보	미상

그러나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김중건이 대한국민단 간도지방 지단장으로서 군자금 모집 활동을 전개하던 중 정체가 탄로 나 다시금 총본사가 있던 원화동이 일본군의 급습을 받았다. 이에 김중건을 비롯한 10여 명이 검거되고 말았다.<sup>23)</sup> 1922년 초 김중건은 만몽조약에 따라 용정총영 사관에서 3년간 중국재류금지명령을 받고 고향 연동으로

추출되었다.<sup>24)</sup> 가까스로 검거를 모면한 신홍균은 경신참변으로 파괴된 한인 마을에서 계속해서 학교를 설립했다. 신홍균은 충실한 원종교인과 ‘불령선인’<sup>25)</sup>을 양성하였다. 1922년부터 1924년까지 원종교와 대진단의 이름으로 세워진 학교는 14개로, 장백현 지역 전체 53%나 차지했다.

표 2. 1922~1924년 원종교와 대진단이 설립한 학교 현황<sup>26)</sup>

학교명	위치	학교명	위치	학교명	위치
용진	연길현 남령	선진	광성군 태양촌	관용	회령촌
경신	북구 강불사	침선	과풍동	의성	화룡현 선화사
애영	북구 세린하	항성	신평동	범영	이도구 행피구
교종	석마동	현신	수신향 개척리	시영	어절재
치정	용성나자	인성	팔포강 송림촌		

하지만 상황은 그리 순탄하지 못했다. 원화동 지역에 장절부사가 유행하여 많은 원종교도들이 사망했다. 그 뒤 국내에 있던 김중건의 지시에 따라 1925년 봄 원화동의 총본

사를 화룡현 개척리로 옮겼다.<sup>27)</sup> 그런데 당시는 1925년 6월 중·일 간에 이른바 ‘三矢協定’<sup>28)</sup>이 체결되어 중국 지방 당국으로부터 한인 독립운동가 뿐만 아니라 한인 전체가

20) 월남유서에 1919년 가을에 함경남도 삼수군 강진면 두지리 왜정 주재소 헌병대 암살대가 15도구 구태사를 습격했다. 그 뒤 1921년 1월 15일 십록도구 덕수 서곡리 대진단 사무소에 군비단, 태극단, 홍업단, 광복단 연합비밀결사 집회 개최.(高警 제 3450호 자료) 그다음날 1921년 1월 16일 오후 10시 강 건너편에서 함남 삼수군 강진면 두지리 왜정 주재소를 독립투사들이 습격 (高警 제2627호)

21) 관기고발 제739□호 「조선인개항 관동청경무국」 13, 불령선인의 상황.

22) 이계형, 「김중건의 원종 창시와 독립운동」, 한국학논총, 2013;39:299.

23)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滿洲ノ部』 14, 機密第519호, 「不逞團人金仲建外安10名檢舉ニ關スル件」, 해외한일운동자료-만주편(1910~1926)

24) 이계형, 「김중건의 원종 창시와 독립운동」, 한국학논총, 2013;39:301-302.

25) 안도현 흥도자(興道子) 및 잉두산(仍頭山) 지방의 조선인들은 불령 선인을 지칭할 때는 독립군(獨立軍)이라고 부른다. 광복단(光復團)장 이범윤(李範允)은 독립당(獨立黨)의 두목이고, 홍범도(洪範圖)는 군사 방면의 총사령관이라고 생각하고, 이동주(李東周)는 참모장급의 인물로 알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각 단 각 개인의 명칭은 전혀 모르고, 전부 독립단(獨立團)이라고 부르고 있다.

26) 이계형, 「김중건의 원종 창시와 독립운동」, 한국학논총, 2013;39:302.

27) 이계형, 「金中建의 元宗 창시와 독립운동」, 한국학논총, 2013;39:305.

28) 일본 외무성, 『日本外交年表並主要文書』 하, 東京:原書房, 1965:75-76.

① 제만 한인의 호기를 조사, 편성하여 서로 보증케 하고 연대 책임을 부담시킬 것.

② 중국 관헌은 제만 한인이 무기를 휴대하거나 한국에 침입하는 것 엄금할 것.

③ 不逞團團體를 해산하고 그 무장을 해제할 것

④ 제만 한인이 소유한 총기, 화약은 수시로 엄중 수색하여 몰수할 것

탄압을 받아 만주지역 독립군 단체의 존립마저도 위협받던 상황이었다. 당시 북간도 지역의 일반교육이 삼시협정으로 위축당하고 축소되는 상황이었다. 또한 민족종교인 대종교는 1926년 12월 동삼성 당국으로부터 포교금지령을 받아 치명타를 당했다.<sup>29)</sup> 이러한 상황에서 김중건의 원종 포교와 학교설립은 그 나름의 맥을 이어나가 그곳 한인 농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용정의 한인사회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순탄하지는 않았다. 1920년대 전반 이후로 남북 만주에서 활동하던 공산주의 단체들의 견제가 더욱 심해졌기 때문이다.<sup>30)</sup> 이런 가운데 1927년 초 두도구 일본영사분관 경찰에 의해 개척리의 원종 총본사가 압수 수색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중건을 비롯한 이춘옥·김전·김철림·김일숙·김준·김두운 등 신도 6명이 검거되기도 하였다. 그해 5월 김중건은 총영사관 재판소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sup>31)</sup> 검사가 불복하여 공소하는 바람에 서대문경찰서에 다시 수용되었고 1927년 9월 경성복심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서야 방면되었다.<sup>32)</sup> 1929년 봄, 김중건은 결정적인 시기에 일제와 무력전을 준비하기 위한 독립운동의 근거지로, ‘進可以攻 退可以守’<sup>33)</sup>할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을 갖춘 노야령(老爺嶺)<sup>34)</sup> 부근의 흑룡강성 영안현 와룡향 영산촌(英山村) 팔도하자(八道河子)에 새로운 원종촌(원종주의 이상촌) 근거지를 마련하였다. 김중건은 60~70세대 300여 명의 촌민을 이끌고 반농반병(半農半兵)의 형식으로 항일운동과 ‘농촌주의 구체안’인 공작분유제(共作分有制)를 병행하는 이상촌의 꿈을 실천에 옮겨 갔다. 이때

신흥군(申屹)은 이운(李雲)·김대용(金大用)·장제민(張濟民)·조운산(趙雲山)·최일우(崔一宇)·염형석(廉亨錫)·이평림(李平林)·이춘옥(李春郁)·조영섭(趙永燮) 등과 함께 대진단원이자 원종 교단의 중책을 맡아 활동하였다.<sup>35)</sup>

### 3. 만주사변과 민생단(民生團) 사건

1931년 9월 일제가 만주사변이 일으키자, 김중건은 일본군과 전면적인 무장투쟁의 시기로 파악하고 그 준비에 돌입하였다. 이때 신흥군도 결심하여 독립군 활동에 전념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김중건은 1931년 9월 어복촌에 대일 전투 총지휘부격인 진우회(震友會)<sup>36)</sup>를 창립하였다. 진우회 산하에 조선혁명지도처를 창설하고 독립운동 단체의 총결기를 주장하였다.<sup>37)</sup>

1932년 3월 만주국이 수립되고 만주군까지 편성되자, 만주지역에 재류하고 있던 한국 독립군 및 관련 단체와 중국 독립군과 한인 공산주의자들은 서로 힘을 합쳐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반만(반만주국) 항일’ 부대들이 편성되었는데 1932년 당시 36만 명에 달할 정도였다.<sup>38)</sup> 이때 지청천이 이끄는 한국독립군<sup>39)</sup>은 한인 1,600여 명 규모의 병력을 가진 부대였지만, 무기·탄약·식량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중국의 반만·한일부대와와의 연합 협작이 불가피했다. 이에 한국독립군은 1932년 1, 2월에 吉林自衛軍<sup>40)</sup>의 謝復成 부대와 함께 舒蘭縣 전투를, 9월에는 考鳳林 부대와 연합하여 쌍성보 제1차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sup>41)</sup>

- ⑤ 불령선인단체의 수령을 체포하여 일본 관헌에 인도할 것
- ⑥ 중일 양국 관헌은 불령선인 취체의 상황을 상호 통보할 것.
- ⑦ 중일 양국 관헌은 마을대로 월경하지 말 것.
- ⑧ 중전의 현안은 쌍방이 성의를 가지고 해결할 것.

29) 박영석, 「대종교의 민족의식과 항일민족독립운동(하)」, 한국학보, 1983;9(3):98-99.

30) 서대숙, 『한국공산주의운동사연구』, 서울:禾多, 1985:141.

31) 1927년 6월 7일자, 「김소래 장역 3년 구형, 기타 사명은 2년6개월」, 중외일보.

32) 김경일, 『일제하사회운동사자료집』 2, 파주:한국학술정보, 2002:149; 1927년 10월 9일자, 《동아일보》, 「원종교 창시자 김중건 외 5명, 경성복심법원에서 개정된 항소공판에서 무죄 방면됨」.

33) ‘나아가면 공격할 수 있고, 물러서면 지킬 수 있는(進可以攻退可以守)’ 군사적인 요새로 탈바꿈되었다.

34) 흑룡강성 동남부와 길림성 동부에 위치한 장백산의 지맥

35) 김지용 편주, 『소래집』 1, 의왕:소래김중건선생기념사업회, 2009:51.

36)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10, 경기: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5:567.

37) 이계형, 「金中建의 元宗 창시와 독립운동」, 한국학논총, 2013;39:312.

38) 각종 반만항일투쟁의 주요 세력은 크게 구룡전군벌계의 지방주둔군 지휘관과 그 예하 병력, 大凡會·紅槍會 등과 같은 종교집단, 그리고 중국 동북의 전통적 마적집단, 또 중국·한인 공산주의자들의 무장세력, 조선혁명군·한국독립군 등의 한인 민족주의 세력 등으로 대별된다. 이명영, 「1930년대 재만한인의 항일무장투쟁」, 아시아학보, 1975;11:150.

39) 한국독립군은 한족총연합회 후신으로 1930년 7월 창당한 한국독립당의 당군으로 일제의 만주사변 이후 1931년 11월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阿城縣 大吉河에서 창설되었다. 박환, 「재만 한국독립당에 대한 일고찰」, 역사학보, 1987;108:243.

40) 1931년 9월말 동북변방군 길림부대 부사령 熙治이 일제의 관동군의 후원을 받아 임시 길림성정부를 세우자, 1931년 11월 誠允이 이에 반발하여 賓縣에 길림성정부를 세웠다. 그는 동북변방군 길림부대 제24여장 李杜, 代理護路司令 丁超, 제22여장 趙毅·刑占清·馮占海 등과 힘을 합쳐 1932년 1월 길림성자위군을 조직하였다. 때문에 길림자위군은 군소 구동북군의 연합군·官兵의 성격이 강하였다.

41) 조동걸, 「만주에서 전개된 한국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의: 1920년 청산리전쟁 80주년의 회고와 반성」, 한국사연구회, 2000:368-369.

1932년부터 연길현·왕청현·훈춘현·화룡현 항일유격대가 조직되었는데, 이를 기반으로 1933년 봄부터 항일유격 근거지가 만들어졌고,<sup>42)</sup> 1930년대 후반 동북인민혁명군(東北人民革命軍)을 거쳐 동북항일연군(東北抗日聯軍)으로 개편되면서 만주 항일운동의 중심 세력으로 급부상하였다.<sup>43)</sup> 이처럼 만주 일대에서 항일투쟁이 전개되자, 김중건은 길림구국군(吉林救國軍)<sup>44)</sup>의 왕덕림(王德林) 부대와 항일공동전선을 펼치고자 했다. 길림구국군은 왕덕림을 총사령으로 劉萬魁·吳義成(전방 사령관)·이해청·孔憲營(부사령관) 등이 지휘하는 부대였다.<sup>45)</sup> 김중건은 길림구국군 부사령관 공헌영과 연합에 합의한 뒤에, 동녕현의 길림구국군 총사령부에 김대용(金大用) 등 4명을 파견하여 연합전선을 펼치도록 했다. 이들은 소련에서 만주로 넘어 온 강국모(姜國模)<sup>46)</sup> 부대와 손을 잡고 공동전선을 구축하였다. 1933년 1월, 이를 통해 편성된 원종 교도의 부대는 최후의 거점인 동녕현으로 일본군이 진격해 들어오자 이에 맞서 길림구국군과 격렬히 싸웠다.<sup>47)</sup> 그러나 전선이 붕괴되어 길림구국은 극도의 혼란 속에 만소 국경 밀림지대로 총퇴각해버렸다. 원종 부대는 노흑산 방면으로 퇴각하고 일부는 일본군에 체포되고 말았다.<sup>48)</sup> 한편 1933년 3월 초, 한국독립군의 지청천으로부터 김중건에게 연합하자는 제의가 들어왔다. 당시 한국독립군은 비록 제1차 쌍성보 전투에서 일본군에 승리를 거뒀지만, 1932년 11월 제2차 쌍성보 전투에서 패하여 오상현 사자하(沙子河) 지방으로 이동하였다.<sup>49)</sup>

부대를 정비한 후, 동만주 만·소 국경지대로 이동하여 길림구국군 제14단 시세영(柴世榮) 부대와 연합하여(한중연합군), 1933년 2월 경박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둬 동경성을 점령하고 영안현·이도하자 등지에서 일본군·만주군과 전투를 전개하던 때였다.<sup>50)</sup> 김중건은 지청천의 제의를 받아들여 평소 비축했던 물자와 장병 제1진 신흥군(申屹)<sup>51)</sup>·안태진(安泰振) 등 50여 명을 보냈다.<sup>52)</sup> 그런데 얼마 뒤 그해 3월 20일경, 동자구에 주둔하던 이광(李光)<sup>53)</sup>이 이끄는 길림구국군의 공산군 부대(항일별동대)가 어북촌에 나타났다. 길림구국군 내부에는 창군 초기부터 상당수의 중·한 공산주의자들이 침투해 있었다. 특히 그해 1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중국공산당 만주성위 각급당부에 보낸 서한(一月書簡)을 통해 각 항일부대와와의 통일전선 결성을 강조한 후,<sup>54)</sup> 공산주의자들의 침투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그 가운데는 한인 공산주의자들로 구성된 별동대가 따로 편성되어 있었다. 이들은 김중건과 어북촌의 원종 교도들을 회유, 협박하면서 자신들에게 협조할 것을 종용하였다. 김중건은 길림구국군이지만 중국공산당의 지휘를 받는 자들이라며, 여러 차례 이들의 제의를 완강히 거부했다. 그 뒤 3월 24일 이욱(李旭)이 중국공산당 산하 군대를 이끌고 어북촌 마을로 들어와 김중건과 간부 5명을 체포해 아랫마을에 중국인들이 사는 마을로 끌고 가 중국인 장해(張海)의 집에 감금하고 고문을 가했다. 이들이 김중건을 살해하려는 목적은 마르크스주의의 적이라는 것이었다. 김중건은 오래전부터

42) 이홍문, 양필승 옮김, 『만주현대사-항일무장투쟁기(1931~1945)』, 서울:대륙연구소출판부, 1992:52-53.

43) 이홍문, 양필승, 위의 책, 46-223.

44) 延吉鎮守使 吉興 부대의 3영장 王德林은 친일파 熙治의 명령을 거부하고, 1932년 2월 초 돈화에서 길림구국군을 조직하였다. 그는 부대의 전투력 강화에 노력하며 많은 농·공·상·學兵의 연합군 등 항일 부대들을 흡수, 통합하며 세력을 키워 나갔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민중의 무장세력으로 성장하였다. 때문에 길림사위군 대부분이 구동북군 출신이고 한 때 賓縣政府의 정규군 성격을 띠었다. 한편 구국군은 상당수가 구 동북군이 포함되기도 했지만, 동북의 민중에 의한 隊伍, 즉 구국의 의지를 갖고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 민중의 무장집단 성격을 강했다. 장세윤, 「한국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989:3:332.

45) 장세윤, 위의 책, 333-334쪽.

46) 동녕현의 독립단 영수 강국모는 최일우·이순서·이광현 등과 더불어 활동하였다.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경기: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465-466.

47) 이계형, 「金中建의 元宗 창시와 독립운동」, 한국학논총, 2013:39:315.

48) 위의 책, 111-112쪽.

49) 신숙, 『나의 一生』, 서울:일신사, 1963:113.; 신용하, 「한국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의 무장독립운동」, 한국학보, 2003:29(3):11.

50) 조경한, 「재만 독립군의 김중건」, 『개혁의 이론과 독립운동』 (2), 경기:소래김중건선생기념회, 1995:97.

51) 신흥군은 김중건과 함께 활동할 당시에는 申屹로 개명하였지만, 지청천이 이끄는 한국독립군으로 활동하면서 다시 이름을 申屹로 개명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조경한 선생의 외손 심정섭 선생의 증언 자료 참고. 그는 그 이유에 대해 “원래는 홀자로 썼는데 임진 왜란때 평산신씨 조상가 운데 신흥(申屹)장군을 존경하는데 립(屹)글자에 돌석자가 들어가서 나도 돌석을 쓰면서 신흥장군같이 항일운동의 정신을 이어받겠다는 뜻이다. 그리고 우뚝 솟을屹자는 뼈죽뼈죽해서 사람들을 포용하기가 어렵다. 나는 한의사인데 포용하는 의미로屹자를 쓰면서 고쳤습니다.”라고 증언했다.

52) 조경한, 「재만 독립군과 김중건」, 소래김중건선생기념회, 1995:98-99.

53) 최성준, 『연변인민항일투쟁사』, 북경:민족출판사, 1999:143. “이광은 중국공산단원으로 구국군전방지휘부 왕청항일병동대 대장인데 공산당에서 구국군 오의성부대에 비밀리에 파견한 사람이다.”

54) 여기에서 각종 반일유격부대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① 순수한 구 길림군계 ② 왕덕림부대로 대표되는 반일의용군 부대 ③ 각종 농민유격대(대도회·홍창회·자위군)-소자산계급, 지식분자 ④ 적격유격대,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중국부회편, 『중국공산당사자료집』 6, 東京:경초서방, 1973:177-178.; 장세윤, 「한국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989:3 참조



공산주의 노선에는 비타협적인 입장을 견지했기에 어복촌을 공산화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김중건이 눈에 가시같은 존재였다. 김중건과 원종 교도에게 강요한 자백은 다음과 같다.<sup>55)</sup>

1. 김소래는 용청총영사관의 기밀금을 받아먹고 민생단을 조직하였다는 것
2. 김소래 외 25명은 민생단 결사대원이라는 것
3. 어복촌 주민은 모두 민생단원이라는 것
4. 다수의 혁명 동지를 살해하였다는 것

이목을 포함한 중국공산당 산하 군대가 노린 것은 어복촌에 비축해둔 보급품이었다. 그들은 김중건과 원종교인들에게 친일파라는 억울한 누명을 씌웠다.<sup>56)</sup> 일제는 투항해온 민족주의자와 친일파, 귀순 변절자 등을 이용하여 독립운동 진영, 특히 공산주의 무장투쟁 단체의 내부 분열 공작을 시도하였다. 그 뒤 민생단은 1932년 7월 사실상 해체되었지만,<sup>57)</sup> 1932년 10월 중국공산당 만주성위는 잠입해온 민생단 스카이를 적발, 폭로하기 위한 ‘반민생단 투쟁’을 전개하였다.<sup>58)</sup> 이를 계기로 혁명 대열 내에 상호 의심, 알력, 동지 간의 불신임이 심화되어 큰 혼란이 일어났으며, 이 때문에 수많은 한인공산주의자들이 민생단원이라는 누명을 쓰고 처단되었다. 그 결과 무장 투쟁 조직의 많은 부분이 파괴되었고 통일전선 구축을 위한 노력이 크게 후퇴하고 말았다.<sup>59)</sup> 김중건 등이 끝내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자 그들

은 어복촌 전 주민을 모아 놓고 총검을 찬 중국 군인들이 에워싼 가운데 김중건과 간부들을 처형하였다. 김중건이 살해된 후 어복촌은 불타버렸고 주민들은 강제로 해산되고 말았다. 당시 지청천이 이끌고 있던 한국독립군이 김중건을 구출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했지만 때는 지난 뒤였다.<sup>60)</sup> 주보중(周保中)은 동만지구 당 조직 내에 적어도 50%의 민생분자가 있다고 하여 2000여 명을 죽이었다. 통계기록을 확인해보니 민생단 관련 피해자는 1000여 명이 넘고, 이중 집단 살해 당한 조선인의 수만 500여 명에 달한다.<sup>61)</sup>

#### 4. 사도하자(四道河子), 동경성(東京城), 대전자령(大甸子嶺) 전투

신흥군(申屹)은 1933년 3월 김중건의 지시에 따라 대전단원을 포함해 500여 명<sup>62)</sup>의 원종교 교인들을 이끌고 지청천이 이끄는 한국독립군에 합류하였다.<sup>63)</sup> 당시 한국독립군의 전 부대가 1933년 2월 경박호전투에서 승리한 후 영안현 사도하자(四道河子)에 주도하고 있던 때였다. 지청천은 500여 명 가운데 100여 명을 선전대에 편입시켰고, 이들은 한국독립군의 전투력 증강과 세력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다.<sup>64)</sup> 이후 신흥군은 한국독립군의 일원으로 사도하자, 동경성전투, 대전자령 전투에 참전하였다. 1933년 4월 14일 한중연합군은 영안현에 주도하고 있던 일본군·만주군 연합부대가 공격해 올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이에 한중연합군은 적군을 유인하여 포위, 섬멸하기로 하고 병력을 4대

55) 김지용, 『소래집』 상, 의왕:소래김중건선생기념사업회, 2009:35.

56) 민생단은 1932년 2월 15일에 북간도 용정에서 ‘간도자치’와 ‘생활 산업화’ 및 ‘자유천지 개혁’을 표방하면서 설립될 때 제정한 ‘규약’에는 간도 지역 4개현 외에 그 어떤 인물과 단체도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같은 시기에 북만 지역에 체류하던 김중건은 민생단과 연관이 없었다. 김중건은 민생단의 협의로 살해된 희생자다. 그 구성으로는 친일파 민족 개량주의자들, 반공분자들이 중심이 되어 일본 관헌의 지도를 받아 공산주의 운동을 방해, 섬멸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57) 김태국, 「만주지역 ‘조선인 민회’ 연구」, 국민대 박사학위논문, 2001:231. “1932년 3월 1일 일제는 ‘만주국’을 설립하고 ‘민족협화’라는 건국이념으로 만주에 거주하던 여러 민족을 새로운 식민지배 체제 속에 편입시키고자 했다. 즉 여러 민족을 하나의 통치체제 속에 묶어 넣어야 하는 일제의 입장에서 민생단과 간도혼촌민회연합회가 열을 올려 주장하던 조선인의 독자적인 ‘특별행정구’ 설정 요구를 결코 수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민생단은 단명으로 자체 해산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58) 김성호, 『1930년대 연변 민생단 사건 연구』, 서울:백산자료원, 1999:539. “1932년 10월부터 시작된 ‘반민생단 투쟁’은 1936년 2월까지 3년 4개월 간 지속되었다. 이에 북간도 지역 한인공산주의자 500여 명이 억울하게 학살되었고 수천 명이 의심, 배척을 당하는 등 엄청난 비극이 발생하였다”

59) 스칼라피노, 이정식, 『한국공산주의운동사』 1, 서울:돌베개, 1986:283.

60) 조경환, 「제만 독립군과 김중건」, 외솔회, 1976:101-101.

6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민생단사건(民生團事件), 2016:1.

62) 일차 김소래가 신흥군과 안태진에게 명한 인원은 50명이었다가 이광에 의해 어복촌이 불타고 인원이 뿔뿔이 흩어진 뒤에 남은 인원들이 신흥군, 안태진의 지도하에 독립군에 재차 합류한 인원이 총 500명이라고 본다.

63) 一靑 조경환, 「9·18後 韓國獨立軍在東北殺敵略史」, 광복, 1943:2(1):55; 한국독립운동사자료총서, 광복,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7:1: 415. 그런데 조경환이 회고록에는 동경성전투 이후 6월경에 합세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김중건이 1933년 3월에 사망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 신흥군이 한국독립군에 합류한 것이 맞다고 생각된다. 정원옥은 한국독립군이 경박호전투에서 첫 승리를 거둔 후 사도하자에 주둔하면서 사병을 징모하였는데, 마침 동남 일대에 있던 원종 교도 申屹 이하 500여 명이 교주 金笑來의 遺命을 받아 자진 응모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정원옥, 『韓國獨立軍의 組織과 獨立戰鬪』, 사학연구, 1992:43·44:230-231.

64) 조경환, 1975년 4월 15일자, 「상해임시정부」, 중앙일보. <https://www.joins.com/Media/List.aspx?mseq=11&pseq=13878> (2021.04.20)

로 나뉘었다. 다음날 새벽, 1개 사단<sup>65)</sup>의 적군 병력이 사도하자로 침입해 들어왔다. 한중연합군은 적의 퇴로를 끊고 이들을 완전히 포위한 뒤에 맹공을 퍼부어 과반수를 섬멸하였다.<sup>66)</sup> 5월 2일에는 유격대를 파견하여 목림자(木林子)·금창구(金廠口)·주가둔(朱家屯)·황가둔(黃家屯) 등지에서 일본군·만주군과 크고 작은 전투를 벌였다. 그 결과 한중연합군은 많은 전리품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군·만주군에 커다란 손실을 입혔다. 다시 부대를 정비한 한중연합군은 영안현성을 점령하기 전 동경성을 공격하기로 하였다. 동경성은 중국 흑룡강성 묵단강시 영안시 발해진에 있는 남북국시대 발해의 수도인 상경용천부의 성곽터다.<sup>67)</sup> 영안현 기준 서남쪽에 위치해있는 방위요충지다. 이곳은 교통의 요지로서 일본군·만주군의 식량 보급기지이기도 하였다. 한중연합군은 1933년 6월 7일 부대를 3개 대로 편성하여 동경성을 공격하였다. 그날 저녁에 공격을 개시하여 3시간 만에 한국독립군이 서문을 뚫고 성안으로 진입하였다. 이에 일본군은 전세가 불리하자 북문으로 퇴각하였지만 매복해있던 북병에 거의 제멸하였다. 만주군 대부분은 항복하였다. 사도하자 전투 당시보다 많은 전리품을 획득하였지만, 동경성의 수비 곤란, 후속 보급 문제, 그리고 적군 대부대의 역습 등의 우려로 철수한 뒤 왕청·동녕현 사이 산림지대로 이동했다. 동경성전투 이후 연변지역의 왕청현 동북의 산악지대에서 활동하던 한중연합군은 1933년 6월 하순경 老松嶺을 넘어 東西臉子에 머물고 있었는데, 대전자(일명 羅子溝)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이 연길현 방면으로 철수할 것이란 정보<sup>68)</sup>를 입수하였다. 일본군은 조선주둔 제19사단에서 파견된 1,600여 명 규모의 ‘간도파견군’으로 지휘관은 이케다 신이치(池田信吉) 대좌였다.<sup>69)</sup> 이에 한중연합군은 매복하여 적군을 공격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하여 부대를 배치코자 하였다. 대전자령은 일본군이 왕청으로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지점이었다. 이곳은 약 40~50리 정도의 기다란 협곡으로 마치 ‘乙’자 모양으로 굽어졌고,

800~1,000m나 되는 험준한 절벽과 울창한 산림지대여서 적을 공격하기에 매우 유리한 지형이었다.<sup>70)</sup>

대전자령 전투에 가장 큰 참여 세력은 다음과 같다. 한국 독립군 주력부대 약 500명, 길림구국군 주력부대 약 2,000명, 그 외 추가 지원세력을 포섭했는데 그들이 바로 녹림대(綠林隊)<sup>71)</sup>였다. 녹림대인 구세군(救世軍) 및 다른 녹림대 두령들과도 동참하여 별도의 부대를 편성하였다. 항일연합군은 총 5개 지대<sup>72)</sup>로 나뉘어 일본군을 공격키로 결정했다. 한중연합군은 3일간 100km를 이동하여, 일본군의 통과 예상지점인 대전자 서쪽 양편 계곡에 매복했다. 제4대로 편성된 백장 조정환 등의 한국독립군 부대는 대전자 북방 노모저하(老母猪河)의 남쪽을 거쳐 목표 지점인 서북쪽으로 이동했다. 6월 28일 아침부터 폭우가 쏟아졌다. 이로인해 3일간 100km의 고된 행군을 거쳐 매복, 대기하고 있던 한국독립군은 체력적으로 지친 상태에서 비까지 맞게 되었고, 일본군 역시 비로인해 출정이 지연되기 시작했다. 이에 꼼짝없이 한중연합군은 폭우와 굶주림을 견뎌내며 일본군이 통과하기를 끈질기게 기다렸다. 결국 한중연합군의 참호 속에 빗물이 차올라 독립군의 허리춤까지 차올랐다. 준비한 乾糧이 다 떨어져 가고 일본군은 나타나지 않자 지청천과 조정환 등은 독립군의 사기 진작을 위해 참호를 돌며 격려했지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때 군의관 신흥군(申屹)이 숲속에 자생하는 검은 버섯을 대용식품으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하여 한국독립군들의 굶주림을 벗어나게 해주었다. 신군은 “이것 좀 잡수시오. 가을 장마 끝에 숲속에 돋는 검정버섯인데 중국인들이 요리로 많이 애용하고療飢治風도 하지요. 이것 빗물에 씻어서 소금에 범벅했으니 잠시 요기는 되실 겁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조정환은 각 부대에 명령하여 그 방법으로 잠시 요기토록 하였다고 한다.<sup>73)</sup> 조정환은 이에 대해 매우 인상 깊었던지 자신이 지은 산문 「대전자대첩」에서 신흥군(신희, 신굴)의 활동을 남

65) 채근식, 『무장독립운동사비사』, 서울:대한민국공보처, 1949:176; 애국동지원호회, 『독립운동사』, 서울:애국동지수호회, 1956:277;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5권, 경기: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3:630. “一靑(조정환)의 ‘9·18後 韓國獨立軍在東北殺敵略史’, 55쪽에 1개 사단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 적군의 규모를 정확히 할 수 없다”

66) 장세윤, 「한국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989:3:348.

6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영안동경성寧安東京城, 1996:1.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37493>

68) 2020년 4월 25일자,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515437&code=61171111>  
“[정상규의 히든 히어로] “살아 무엇하랴, 목숨 끝까지 노라” 독립군 장군 구해넌 연설”(2021.04.02.)

69) 장세윤, 「한국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989:3:351.

70) 지현모, 『청천장군의 혁명투쟁사』, 서울:삼성당, 1949:136.

71) 마적·土匪 등 지방 무장 세력을 일컫는다.

72) 제1지대 한국독립군, 제2지대 시세영 부대, 제3지대 구세군 등 녹림대, 제4지대 한국독립군, 제5지대 시세영 부대.

졌다.<sup>74)</sup>



그림 2. <신흥군><sup>75)</sup>

「대전자대첩大甸子大捷에 대한 詩」

(중략)

赤鳥黃兎近三匝 해와 달 뜨고 지기 세 차례이건만  
苦待天狼奚到遲 기다리는 이리떼는 아직도 보이지 않네  
餓糧罄竭飢侵肚 바닥난 군량은 굶주림을 더하고,<sup>76)</sup>  
霍沛連綿冷逼肌 장맛비 차가움 뼈 속에 스며든다.  
黑曹採取和鹽食 검정버섯 따다가 소금 절여 먹어보니  
非獨治風且療饑 요기도 되려니와 치풍도 된다누나  
可愛奇方何處出 어여쁘다.<sup>77)</sup> 이 기방 누구에서 나왔느냐.  
姓申名屹是軍醫 그는 바로 군의관 신굴(申屹)이다.<sup>78)</sup>

(하략)

배고픔과 추위를 달래며 일본군을 기다린 지 3일 후인 6월 30일 아침 6시경, 일본군이 드디어 자동차와 우마차에 화물을 싣고 대전자령을 향해 출발하였다.<sup>79)</sup> 행렬의 선두는 화물자동차부대, 가운데는 우마차대, 후미에는 자동차 여러 대가 뒤를 따랐다. 당시 간도파견군은 이케다 대좌가 인솔하는 회령주둔 보병 제75연대 소속의 주력 부대 500여 명, 山砲隊 본부 및 산포 2개 중대, 함흥주둔 보병 제74연대 보병 3개 중대, 기관총대 1개 중대와 야포 2개 중대, 기병 1개 소대 등으로 이루어졌다.<sup>80)</sup> 그날 오후 1시경 일본군의 전초부대가 지나간 뒤 화물자동차를 앞세우고 본대가 계속 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일본군의 후미 부대가 매복한 골짜기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면 총공격을 개시하자고 하였는데, 시세영 부대가 성급히 사격을 개시하면서 전투가 시작되었다.<sup>81)</sup> 한국독립군은 사격과 함께 바위를 굴러 일본군을 살상하고 자동차와 우마차를 파괴하여 적을 완전히 포위·고립시켰다. 불의의 기습을 받은 일본군은 어찌하지 못하고 중무기와 차량 등을 버리고 도주코자 하였으나 거의 궤멸하였다.<sup>82)</sup> 대전자령 전투는 4~5시간에 걸쳐 치열하게 전개되었는데, 일본군은 130여 명 이상이 살상되었고 많은 병력이 사산·도주하는 치명적 손상을 입고 일부 부대가 빠져나가는 데 그쳤다. 승리한 한중연합군은 각종 무기·탄약·피복·식량 등 엄청난 물량의 군용품들을 노획했다. 그날 오후에 또 비가 내리고 날이 저물어 한중연합군은 이튿날인 7월 1일 아침에 전장을 정리하였다.<sup>83)</sup> 대전자령 계곡에서 가까스로 빠져나간 일본군의 일부 병력과 화물자동차·우마차 등의 호송대 행렬은 6월 30일 오후에 화피전자(樺皮甸子) 동쪽에서 약 400명의 연합군(길림구국군 혹은 한국독립군)과 또다시 교전하였는데, 이후에도 다른 군소 반만항일 부

73) 조경한, 「상해임시정부」, 1975년 4월 26일자,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1404995>(2021.04.21); 조경한, 『백강회고록』, 한국종교협의회, 1979:129-130.

74) 조경한, 「대전자대첩-항일무력투쟁의 한 단면사」, 군사(창간호), 1980:1:91-93.

75) 해당 사진은 신흥군 한의사가 작은할아버지가 되는 후손 신준식 한의사로부터 직접 건네받았다.

76) 2020년 4월 25일자,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515437&code=61171111>

“[정상규의 히든 히어로] “살아 무엇하랴, 목숨 꿰겠노라” 독립군 장군 구해넨 연설”(2021.04.02.)

77) 위와 같음.

78) 위와 같음.

79) 2020년 6월 4일자, 한의신문.

[https://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39715](https://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39715)

“독립군 군의관이 된 한의사, 신흥군 선생의 독립투쟁일지 下”(2021.04.01.)

80) 1933년 7월 9일자, 조선일보.

[https://www.nl.go.kr/newspaper/sub0101.do?q\\_keyword=%EC%82%AC%EC%A7%84%EA%B8%B0%EA%B3%84&category=all](https://www.nl.go.kr/newspaper/sub0101.do?q_keyword=%EC%82%AC%EC%A7%84%EA%B8%B0%EA%B3%84&category=all) (2021.04.27). “조선군사령부 발표임을 밝히면서 「나자구 피난민 중 1,600명 四散, 士兵의 습격으로 30명 사상, 행방불명도 50명.”

81) 정상규, 2020년 4월 25일자, “[정상규의 히든 히어로] 살아 무엇하랴, 목숨 꿰겠노라, 독립군 장군 구해넨 연설”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515437&code=61171111> (2021.04.02.)

82) 지현모, 『청천장군의 혁명투쟁사』, 서울:동화출판사, 1949:142-144; 조경한, 『백강회고록』, 서울:한국종교협의회, 1979:130-131.

83) 장세윤, 「한국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989:3:353-355.

대의 수차례의 습격을 받고 가까스로 7월 4~5일경 백초구에 도착하였다.<sup>84)</sup> 대전자령 전투는 청산리 전투·봉오동 전투에 버금가는 빛나는 대첩이었다. 전투의 규모와 한중연합 작전이었음을 고려하면 사실 전자의 ‘전투’와 달리 한국군과 중국군이 연합해 대승을 거둔 ‘전쟁’에 가까운 점에 더욱 역사적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약 40일간 한국독립군과 길림구국군은 노획품을 정리하고 분배했다. 부상병은 치료를 받았고 부대를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백두산 인근 안도현 부근에 있던 길림구국군 대리총사령 吳義成은 대전자령 전투의 승리 소식을 들은 직후 부대를

이끌고 합류했다. 이후 독자적으로 활동해 온 시세영 부대가 오의성 휘하로 통합되었다. 그러나 이때부터 한국독립군과 중국군 사이에는 갈등이 불거졌다. 시세영 부대와 의전품 분배 문제와 더불어 오의성 휘하에는 중국공산당에서 파견된 周保中 등 많은 공산주의자가 주요 직책을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sup>85)</sup> 특히 한인 李光이 별동대 ‘전방유격대’ 대장을 맡고 있어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러한 한중연합군의 갈등은 동녕현성(東寧縣城) 전투 이후 더욱 노골화하였다.



그림 3. 길림구국군. 유경봉, 「길림신문」, [대형련재]중국조선족력사(43)

위 사진 속 왼쪽부터 왕덕림, 오의성, 사충항, 시세영의 모습이다. 한국독립군은 오의성 휘하의 시세영·사충항 등의 부대, 중국공산당 계통의 훈춘·왕청 유격대 한인부대와 연합하여 1933년 9월 6일 중·소 국경지대의 동녕현성을 공격하였다. 한중연합군은 처음에는 적에 큰 타격을 주었지만 결국 패퇴하고 말았다.<sup>86)</sup> 이후 한국독립군은 여러 부대와 함께 대전자에 주둔하였다. 이때 참모장 주보중은 陳翰章등 중국공산당원과 함께 길림구국군 부대의 공산화와 통일전선공작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해 8월 초 오의성 등은 한국독립군에 대해 길림구국군에 합류할 것과 무기의 절반 이상을 넘기라는 무리한 요구를 몇 차례나 강요하였다.<sup>87)</sup> 지청천은 이들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소래 김중건을 죽였던 똑같은 방법으로 주보중과 한인 공산주의자들은 한국독립군 병사들이 1932년 2월 용정에서 조직된 친일반공

단체 민생단(民生團)과 내통하고 있다며 음해하기 시작했다. 대진단장 김중건을 살해하고 병력을 약탈했던 그 방법과 똑같았다. 이를 빌미로 오의성은 1933년 10월 13일 밤에 산하 부대를 동원하여 지청천 등 330여 명의 한국독립군을 포위하고 무장을 해제하며, 상당수의 장교와 사병들을 무고하게 구금했다.<sup>88)</sup> 이때 신흥군은 구금되지 않아 휘하의 병사들을 지휘하여 동요하지 않도록 하였다. 선전대를 거느리고 훈춘 방면으로 계몽강연을 나갔던 조경한이 돌아왔고 시세영 등 길림구국군 간부들의 도움을 받아 자칫 극단적인 유혈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sup>89)</sup> 조경한이 길림구국군 사령관 오의성을 찾아가 독립군을 적극 변호, 항의하여 가까스로 한국독립군 병사들 대부분은 풀려났지만 지청천만은 풀어주지 않고 사형을 집행하려 했다. 이에 조경한과 장교들이 대책을 논의

84) 일본의무성. 「間島及接壤地方共匪、不逞鮮人ノ行動情況」. 육·해군성 문서 제329권:205.

85) 조경한. 『백강회고록』. 서울:한국종교협의회. 1979:144-146.

86) 김동화 외 편저. 『연변당사 사건과 인물』. 북한:연변인민출판사. 1988:144-145.

87) 지현모. 『청천장군의 혁명투쟁사』. 서울:동화출판사. 1949:150-151.

88) 정상규, 2020년 4월 25일자, “[정상규의 히든 히어로] 살아 무엇하랴, 목숨 끊겠노라, 독립군 장군 구해낸 연설”국민일보.

89) 조경한. 「韓國獨立軍與中國義勇軍聯合抗日記實」, 『革命公論』 1-4. 1934:72-73; 조경한. 『백강회고록』. 서울:한국종교협의회. 1979:147-151.

하던 중에 신흥균이 불쑥 나서며 일장 연설을 하였다.

“내 나이 50이 되도록 독립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처자를 버리고 만주에 와서 돌아다니다가 김소래 선생을 만나 지도를 받았는데, 그분은 불행히 공산도배에게 학살되었고 그분의 평일 유명에 의해 지청청 장군의 휘하에 들어와 장군을 유일한 砥柱로 앙모하고 섬겨 왔는데 또 장군을 잃게 되었으니 내 살아 무엇하랴? 이로써 목숨을 끊겠노라.”

말을 마치자마자 신흥균은 손에 쥐고 있던 생 아편 덩어리<sup>90)</sup> 입에 넣더니 아작 아작 씹어 삼켰다. 자그마치 달걀만한 큰 덩어리였다. 주위 사람들은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했다. 누군가 비눗물을 먹여 토하게 하면 구할 수 있다고 하여 그때로 따르려 하자 두 시간에 만에 그가 살아났다.<sup>91)</sup> 사도하자, 동경성, 대전자령 전투에서 한중연합군의 치료를 도왔던 군의관 신흥균의 자결시도와 일 같은 중국군의 전리품 획득 및 한국 독립군에 대한 조치 명분을 떨어뜨리기에 충분했다. 이후 조경한의 노력에 지청천이 풀려나게 되었고 그 뒤 한국독립군은 중국의용군과 결별하였다. 한국독립군은 간부 회의를 열고 소규모 유격작전을 펼치기로 결정한 뒤 둔전제를 시행했다.<sup>92)</sup> 하지만 이 또한 여의치 않았다. 1932년 3월 ‘만주국’이 성립한 이후 독립군 탄압이 가중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한국독립군은 해체상태에 빠졌고 간부들은 다른 방도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때 중국 관내에 있던 백범 김구와 약산 김원봉 등은 1932년 4월 29일 매현 윤봉길의 홍커우 공원 의거(虹口公園事件) 이후 중국 국민당의 장제로부터 지원을 받게되었다. 또한 당시 만보산 사건으로 한국과 중국과의 악화된 관계가 개선되는 전환점이 되기도 했었다.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인 청년들을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sup>93)</sup>에 입학시켰고 한국독립군 지청천을 교관 겸 책임자로 지정했다. 이 소식은 이규보·오광선 등을 통해 1933년

10월 초 한국독립군에 전달되었다.<sup>94)</sup> 이에 한국독립당 당수 홍진 및 총사령 지청천, 조경한·오광선·公震遠·김창환 등 한국독립군 주요간부들과 병사 가운데서 선발된 군관학교 입학지원자 등 40여 명은 북경을 거쳐 낙양·남경 등으로 떠나갔다.<sup>95)</sup> 중국공산당에 가입해 항일투쟁에 함께했던 일부 한인들은 공산당 계열의 유격대와 동북인민혁명군에 참여했다. 이들은 1940년 초 러시아 연해주로 이동하여 계속해서 항일투쟁을 이어갔다. 신흥균을 비롯한 崔岳·崔晚翠 등은 나머지 병사들을 인솔하여 영안·목릉·밀산 등지의 산림지대로 이동하여 후일을 기약하였다.<sup>96)</sup> 이러한 내용은 중국 중경 신문기자 갈적봉이 지은 조선 혁명기에도 ‘동북의 한국 독립군은 申屹, 崔岳·崔晚翠 등이 인솔하여 영안, 목릉, 밀산등의 산림지대로 이동하여 항일 운동을 계속 하였다’라고 서술하고 있다.<sup>97)</sup>

### III. 고찰

지금까지 한의사로서 군자금을 독립군에게 지원하던 방식이 아닌 신흥균이 직접적으로 무장 투쟁 단체인 대진단을 김중건하고 같이 창설하고 그 뒤에 군의軍醫로서 여러 전투에 참여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았다. 환자를 치료하는 한의사가 직접적인 전투를 참여하게된 계기는 1919년 일본 헌병 수색대의 장백현 독립운동 본거지인 왕가동 17도구 습격사건이라고 본다.

함남 삼수군 강진면 두지리의 헌병 암살대가 장백현 17도구를 습격하면서 신흥균의 동생 신훈균을 살해하고 압록강에 수장시켰다는 기록이 신현표의 『월남유서』에 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은 항일 무장투쟁의 계기가 되어 1920년 5월 김중건과 같이 신흥균은 200여 명의 청년과 독립군 <대진

90) 신흥균은 군의관으로서 아편을 독립군 부상자들 진통제로 당시 썼던 상태라 아편을 소지하고 있었다. 그 당시 한의사들은 양비귀를 앵숙각이라고 해서 양방의 물핀같이 진통제 처방으로 썼다.

91) 한글 신화와 申屹이 동시에 표기됨. 조경한, 1975년 4월 29일자, “상해임시정부 제45화”,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1405226> (2021. 04.25); 조경한, 『백강회고록』, 서울:한국종교협의회, 1979:181-182.

92) 당시 독립군은 군구제(軍區制)와 둔전제(屯田制)를 실시해 전지가 도래하면 금방 대규모 병력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평소에는 농사를 지으면서 군사 훈련을 받았는데 이는 평소 자급자족할 수 있는 방편으로 만주지역 독립군들에게 만연한 생활방식이었다.

93) 중앙육군군관학교 낙양분교에 <한국청년군사간부 특별훈련반>을 설치해 만주지역에서 활약한 한인 독립군 단체 주요 간부들과 한인 청년들이 입교했다.

94) 신숙, 『나의 일생』, 서울:일신사, 1963:124-125.

95) 김구, 『백범일지』, 서울:서문당, 1989:309; 신숙, 『나의 일생』, 서울:국학자료원, 2000:124-125; 한상도, 「재만 한국독립당과 한국독립군의 관내지역 이동」, 『한국독립운동과 국제환경』, 서울:한울아카데미, 2000:168.

96)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 4 독립전쟁, 서울:국사편찬위원회, 1988:383.

97) 갈적봉, 『조선 혁명기』, 중경초판, 중화민국 34년 5월:16.

단>을 창설했다. 신흥균은 한의사인 군의관으로 독립군 여러 전투에서 약제지식과 치료법으로 도움을 많이 주었다. 특히 주목할 것은 한의사의 본초지식으로 항일전투 3대대 첩인 청산리, 봉오동, 대전자 전투중 대전자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 독립군이 대전자령 계곡에서 매복중에 일본군대를 기다리다가 전투식량이 떨어져서 독립군의 사기가 위기가 될 때 목이木耳버섯을 산에서 따서 식량으로 대체하게 했다. 그 결과 독립군의 배고픔이 해결되면서 며칠 후에 온 일본군을 대승하게 됐다. 3대 대첩가운데 가장 전리품을 많이 획득한 전투는 대전자 전투이다. 이런 대전자 전투의 전리품문제로 한중연합군의 연대가 내부 음해와 모략에 의해 한국독립군 300명 정도를 중국측에서 가두는 사건이 발생했다. 300명을 가두는 와중에도 군의관인 신흥균은 중국측 군인들의 질병도 치료할수 있는 군의였기에 필요에 의해 가두지 않았다. 독립군 참모인 조정환과 군의인 신흥균등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노력으로 300명의 독립군을 풀어주었지만 중국측 군대에서는 후환이 두려워 지청천 장군을 가두고 죽일 계획이었다. 이에 신흥균은 분노를 느끼고 항변하면서 자살을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 죽음을 담보로 항거한 결과로 지청천 장군이 풀어나게 되었다. 그 뒤로 한중연합군이 결별되면서 따로 활동하는 상황이 되었다.

#### IV. 결론

신흥균은 1881년 8월 20일(음) 함경남도 북청군 신북청면 동상리에서 한성관윤공과 18세손으로 신태검(申泰儉)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한의업을 가업으로 이어오고 있었다. 당시 조선의 과거시험 잡과에 합격한 한의사 집안으로 대대로 한의업을 이어오고 있었다.<sup>98)</sup> 북청 지방 명의로서 수십 년간 한약국을 설립해 운영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20여 두락(斗落)<sup>99)</sup>의 토지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신흥균은 경술국치 직후 신영균과 함께 집안 회의를<sup>100)</sup>한 후 식술을 이끌고 북간도 망명길에 올랐

다. 이는 이회영, 이상용, 김동삼 등 당시 독립운동 집안이 망명한 것과 비견된다. 망명한 장소인 장백현 17도구에서 활동을 하다가 일제에 의한 동생의 죽음으로 인하여 김중건과 같이 대진단을 창설하고 여러 전투에 군의관으로 참석을 했고 대전자 전투에서는 한의학 지식으로 크게 승리하는데 일조를 하였다. 신흥균의 마지막 흔적은 동승촌에서 발견되었다. 이곳에서 마을 이장이 보유하고 있던 오래된 일기장과 마을 어귀에 있는 동승촌 혁명열사탑에서 그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sup>101)</sup> 처음 원종교를 통해 대진단을 만들었던 시기에 한인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일제만이 아니었다. 언제나 수십에서 수백 명의 병력으로 침략과 약탈을 일삼는 토비세력(마적세력)이 존재했다. 신흥균과 함께 동승촌으로 모인 독립군들은 마을 사람들을 마적들로부터 지켜주었다. 어쩌면 과거 원종교의 이름으로 장백현 지역에서 가장 많은 학교를 설립했던 것처럼 또다시 마을을 부흥시키고 발전시키는 노력을 했을지 모른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동승촌 사화』에 나타난 그의 행적은 1833년 대전자 전투 이후에도 조성만과 함께 독립운동을 계속했다는 것이다.<sup>102)</sup> 비록 전투에 참여할 수 없는 그 당시의 상황에서도 군자금과 전투식량을 독립군에게 전달하는 영농활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직접 중국 현장 답사를 통해 아무런 표시도 없이 봉분만 남겨져 있는 쓸쓸한 그의 무덤을 찾아낼 수 있었다. 한의사 신흥균은 구한말 경술국치, 소래 김중건과의 만남, 친동생의 죽음, 경신참변, 대전자전투 등 여러 차례 삶의 변곡점을 겪었다. 그때마다 한의사로, 때로는 종교인으로, 때로는 교육자로, 때로는 독립군 군의관으로 삶을 이어나갔다. 그러한 그의 삶을 1948년 사망 후 73년이 지나서 논문을 통해 미력하나마 찾아보았다. 논문에 다 담지 못했던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있지만, 관련 자료를 보충하여 다음 연구에 서술하겠다. 또한, 이 논문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역사에 가려지고 알려지지 않은 한의사 출신 독립유공자에 대해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고 민족의 학으로서의 한의학이 어떤 역사적 변천사를 거치며 지금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알림으로서 한의학의 정체성, 정통성을 확립하고 한의학이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이바지하려 한다. 신흥균 한의사의 공로를 대한민국 정부는 인정했고, 2020년 11월 17일 고대하던 순국선열의 날에 마

98) 申鉉表, 『越南遺書』 초안, 1959.

99) 한두락은 법씨 한 말의 모 또는 씨앗을 심을 만한 넓이, 논 150~300평, 20두락: 논 3000~6000평

100) 申鉉表, 위의 책, “친형인 신영균과 같이 상의한 집안의 가의家議에 따라”

101) 金有權, 李寶根, 東勝村 史活, 牡丹江市東安區頭隆鎮 東勝村党支部, 2008.

102) 金有權, 李寶根, 東勝村 史活, 牡丹江市東安區頭隆鎮 東勝村党支部, 2008.

침내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 받았다.

## 참고문헌

1. 김구. 『백범일지』. 서울:서문당. 1989:309.
2. 김중건. 『나의 四十年』. 소래의 철학과 사상집 I. 경기:소래선생기념사업회간. 1983:81.
3. 갈적봉. 『조선 혁명기』. 중경초판. 중화민국 34년 5월:16.
4. 김지용 편주. 『소래집』 1. 서울:소래선생기념사업회. 1969:38.
5.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 4 독립전쟁. 서울:국사편찬위원회. 1988:383.
6.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10. 경기: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5:567.
7.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5. 경기: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3:630.
8. 신숙. 『나의 일생』. 서울:일신사. 1963:124-125.
9. 申鉉表. 『越南遺書』 초안. 1959.
10. 스칼라피노, 이정식. 『한국공산주의운동사』 1. 서울:돌베개. 1986:283.
11. 일본국제문헌연구소 중국부회편. 『중국공산당사자료집』 6. 東京:경초서방. 1973:177-178.
12. 의암 손병희선생기념사업회. 『의암 손병희 전기』. 서울:의암 손병희선생기념사업회. 1967:257-258.
13. 윤선자. 『한국근대사와 종교』. 서울:국학자료원. 2002.
14. 애국동지원호회. 『독립운동사』. 서울:애국동지수호회. 1956:277.
15. 조경한. 『백강회고록』. 서울:한국종교협의회. 1979:129-130.
16. 채근식. 『무장독립운동시비사』. 서울:대한민국공보처. 1949:176.
17. 김성호. 『1930년대 연변 민생단 사건 연구』. 서울:백산자료원. 1999:539.
18. 김태국. 「만주지역 ‘조선인 민회’ 연구」. 국민대 박사학위논문. 2001:231.
19. 박경숙. 식민지시기(1910년-1945년) 조선의 인구동태와 구조. 한국인구학. 2009;32(2):29-58.
20. 박영석. 「대종교의 민족의식과 항일민족독립운동(하)」. 한국학보. 1983;9(3):90-116.
21. 박환. 「재만 한국독립당에 대한 일고찰」. 역사학보. 1987;108:243.
22. 배종호. 「극원철학」. 서울:나라사랑. 1976:24.
23. 서대숙. 『한국공산주의운동사연구』. 서울:禾多. 1985:141.
24. 신용하. 「한국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의 무장독립운동」. 한국학보. 2003;29(3):2-34.
25. 한상도. 『한국독립운동과 국제환경』. 서울:한울아카데미. 2000:168.
26. 이계형. 「金中建의 元宗 창시와 독립운동」. 한국학논총. 2013;39:289-324.
27. 이영호. 「갑오농민전쟁 이후 동학농민의 동향과 민족운동」. 역사와 현실. 1990;3:186-218.
28. 이명영. 「1930년대 재만한인의 항일무장투쟁」. 아세아학보. 1975;11:150.
29. 이흥문, 양필승 옮김. 『만주현대사-항일무장투쟁기(1931~1945)』. 서울:대륙연구소출판부. 1992:52-53.
30. 일본의무성. 「間島及接壤地方共匪, 不逞鮮人ノ行動情況」. 육·해군성 문서 제329권:205.
31. 지현모. 『청천장군의 혁명투쟁사』. 서울:삼성당. 1949:136.
32. 조동걸. 「만주에서 전개된 한국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의: 1920년 청산리전쟁 80주년의 회고와 반성」. 한국사연구회. 2000:368-369.
33. 조경한. 「재만 독립군의 김중건」, 『개혁의 이론과 독립운동』 (2). 경기:소래김중건선생기념회. 1995:97.
34. 조경한. 「9·18後 韓國獨立軍在東北殺敵略史」. 광복. 1942;2(1):53-56.
35. 정원옥. 「韓國獨立軍의 組織과 獨立戰鬪」. 사학연구. 1992;43·44:215-240.
36. 조경한. 「대전지대첩-항일무력투쟁의 한 단면사」. 군사(창간호). 1980;1:79-93.
37. 장세윤. 「한국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989;3:317-374.
38. 최성준. 『연변인민항일투쟁사』. 북경:민족출판사. 1999:143.
3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영안동경성寧安東京城. 1996:1.
4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민생단사건(民生團事件). 2016:1.
41.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광복(한국독립운동사자료총서)』 제1집. 1987:415.
42. 한상도. 「재만 한국독립당과 한국독립군의 중국관내지역 이동」. 사학연구. 1998;55,56:767-790.
43. 金有權, 李寶根, 東勝村 史活, 牡丹江市東安區頭隆鎮 東勝村黨支部, 2008.
44. 警秘 第一六四號, 大正十一年 三月 二四日, 「支那長白

撫松安圖各懸下視察情況」, 朝鮮總督府警務局.

45. 大正八年乃至同十年 共七冊 其三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 密受第三三號 其二下, 陸軍省, 高警第三四五號 國外情報, 「夫支那長白縣內不逞鮮人集會建」
46. 외무성. 『日本外交年表並主要文書』 하. 東京:原書房. 1965.
47. 村山智順. 『朝鮮の類似宗教』. 京城:조선총독부. 1935.
48. 해외한일운동자료-만주편(1910~1926)일본 외무성,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滿洲ノ部』 14, 機密第519호, 「不逞鮮人金仲建外安10名檢舉ニ關スル件」.
49. 1927년 6월 7일자, 「김소래 징역 3년 구형, 기타 사명은 2년 6개월」, 중외일보.  
[http://db.history.go.kr/item/level.do?sort=levelId&dir=ASC&start=1&limit=10&page=1&pre\\_page=1&setId=-1&totalCount=0&prevPage=0&prevLimit=&itemId=npjo&types=&synonym=off&chinessChar=on&brokerPagingInfo=&levelId=npjo\\_1927\\_06\\_07&position=0](http://db.history.go.kr/item/level.do?sort=levelId&dir=ASC&start=1&limit=10&page=1&pre_page=1&setId=-1&totalCount=0&prevPage=0&prevLimit=&itemId=npjo&types=&synonym=off&chinessChar=on&brokerPagingInfo=&levelId=npjo_1927_06_07&position=0) (2021.04.20.).
50. 조경한, 1975년 4월 15일자, 「상해임시정부」, 중앙일보.  
<https://www.joins.com/Media/List.aspx?mseq=11&pseq=13878> (2021.04.21.)
51. 1933년 7월 9일자, “조선군사령부 발표임을 밝히면서, 나자구 피난민 중 1,600명 四散, 土兵의 습격으로 30명 사상, 행방불명도 50명” 조선일보.  
[https://newslibrary.chosun.com/view/article\\_view.html?id=434219330709m10227&set\\_date=19330709&page\\_no=2](https://newslibrary.chosun.com/view/article_view.html?id=434219330709m10227&set_date=19330709&page_no=2) (2021.04.22.)
52. 1975년 4월 29일자, “상해임시정부 제45화”,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1405226>(2021.04.25.)
53. 정상규, 2020년 6월 4일자, “독립군 군의관이 된 한의사, 신흥군 선생의 독립투쟁일지 下”, 한의신문.  
[https://www.e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39715](https://www.e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39715) (2021.04.01.)
54. 정상규, 2020년 4월 25일자, “[정상규의 히든 히어로] 살아 무엇하랴, 목숨 꿰겠노라, 독립군 장군 구해낸 연설”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515437&code=61171111> (2021.04.02.)